

“차선·횡단보도 안보여!” 나주 야간운전 위험

곳곳 가로등 꺼지고 투광기 작동 불능... 교통사고 우려

나주시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횡단보도 집중조명기(투광기)의 상당수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집중조명기가 고장이 난 채 방치되면서 되레 사고 위험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관내 횡단보도 55곳에 투광기가 설치돼 있으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작동 불능이거나 전등 일부가 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주중앙병원 사거리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아 ‘교통사망사고 발생 잦은 교차로’와 ‘보행자의’ 표지와 함께 투광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횡단보도를 비추어줄 조명등 4개가 모두 고장나 있었다. 또 나주시내에

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신대 앞 횡단보도 투광기도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대방아파트~동신대 구간은 아예 가로등까지 꺼져 있어 갓길 실선과 차선을 구분하는 점선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주시 대방아파트에 사는 김모(47)씨는 “아파트앞 도로에 차선이 지워져 운전하면서 1차선과 2차선이 혼란스러운데 가로등과 횡단보도 조명까지 안 켜져 야간에 운전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시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어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면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며 “동신대입구, 성북사거리, 금천면, 영산포, 세지 등

에 투광기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돼 조만간 보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48명, 2011년 29명, 2012년 42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 발생한 사망률은 2011년 42.9%, 2012년 51.6%에 이른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들에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시에 알려주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와 ‘음주단속 사전에고제’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시설 개선이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고 토론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json@



대나무축제 꽃탑

담양을 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등 담양의 주요 도로에는 5월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 관광객 맞이용 꽃탑이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화순 힐링푸드축제 ‘가장 긴 점심식사’ 인기 짱

450명 예약 신청 조기 매진

화순군이 2013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한 ‘가장 긴 점심식사’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화순군은 29일 “힐링푸드페스티벌의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인 ‘가장 긴 점심식사’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예약신청을 받은 결과 9일 만에 조기 매진됐다”고 밝혔다.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는 당초 1차 예약신청을 받은 뒤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2차 신청까지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약 신청자가 이미 목표수치인 450여 명을 넘어서면서 조기 마감됐다.

‘가장 긴 점심식사’는 오는 5월17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순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130m의 테이블을 마련한 뒤 참가자들에게 코스형 음식과 공연을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가장 긴 점심식사에 초대받은 관광객들은 2시간여 동안 여유있는 힐링 음식을 맛보며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게 된다.

오는 5월16일부터 4일 동안 화순 하니움문화포스티벌 일원에서 펼쳐지는 힐링푸드축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을 주제로 한 음식축제다.

60종이 넘는 다양한 건강음식과 함께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꾸며진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정남진농협 7년째 무료 건강검진 호응

장흥 정남진농협(조합장·강경일)이 실시하는 무료 종합건강검진사업이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9일 정남진농협에 따르면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 대상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치료는 물론 대장내시경, MRA, CT촬영 등 특수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정남진 농협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실시하는 조합원 무료 종합건강검진은 연인원 5600명(매년 800명)으로 소요된 예산은 총 3억 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북

유산 발굴·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도태권도협회 - 한국 유산추진위, 희망일자리사업 협약

전라북도태권도협회(협회장 유형환)와 한국의 유산추진위원회(위원장 정구선)가 지난 28일 전주 양지중체육관에서 희망일자리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사업은 3800여명이 참여한 국내 최초 전국 향토자원 발굴조사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산 추진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유산 발굴·조사 사업’을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한국의 유산을 발굴·조사해 부가가치 창출과 글로벌 문화상품의 개발, 홍보·마케팅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창출, 국내·외에서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장인들에 대한 명예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위해 마련했다.



또 미래 청소년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통해 지역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융·복합문화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양 기관의 전망이다. 정구선 추진위원장은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자립형 수익창출 모델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의 협약

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선도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무주에 건설 중인 것을 감안, 전북을 홍보하기 위해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박승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인돌유적지·청보리밭 홍보

고창, 여행자가 파워 블로거 초청 투어

고창군은 29일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여행자가 파워 블로거 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명소 합동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창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SNS시대에 맞춰 파워 블로거를 통해 고창의 보물 관광지를 홍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이 마련했다.

이번 합동투어 첫째 날은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 고창읍성, 공음 학원농장 청보리밭을 여행한 후 부안면 용산리에 소재한 국민여가캠핑장과 황토문화체험관에서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숙박했다. 다음날은 선운산도립공원과 탐사르슴지로 지정된 고창갯벌에서 조개 캐기, 어망체험 등을 하고, 석정웰파크시티 휴스파에 들러 온천욕을 하며 피로를 풀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1000만 명 방문시대를 열기 위해 여행자와 파워 블로거 등을 초청 지속적인 합동투어 실시로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해 향후 연계관광 및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남원시, 교통약자 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11개 초교 6억 투입

남원시는 29일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는 중앙초등학교 외 26개 초등학교와 연화학교 등 모두 31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학교별로 안전헬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차량속도표지판(30km),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CCTV 등을 설치해왔다. 그러나 최근 10년이 경과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어린이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초 및 운봉초 등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정비, 방호 울타리 설치 및 교체,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유색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과속 방지턱 설치 등에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조사 및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및 패트롤팀 등 유관기관 및 교통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춘향길놀이

제83회 춘향제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등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27일 열린 춘향길놀이 행사. 춘향전을 12마당으로 연출해 전통과 남원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해학적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남원 시내 일정 구간을 행진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담양공고, 취업 우수학교

교육부장관상 수상 대상으로 공모한 가운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5억1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인력양성사업 선정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높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학생들은 병역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양공고(교장 장시준)가 최근 서울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2012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담양공고 취업지원부장 조정호 교사와 ‘취업기능 강화 유공 교원’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직업정책과장, 해당학교 교육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우수학교 사례발표도 있었다. 담양공고는 2013년도 전국 특성화고 690개 학교를

담양으로 공모한 가운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5억1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높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학생들은 병역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양공고 장시준 교장은 “학생들에게 산학 연계맞춤형 취업지도를 통해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인성과 성실에 바탕을 둔 학생지도에 전교 직원이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한 결과”며 “담양군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강진청자 우수성 세계 알리겠다”

郡, 中 용천시·日 하사미정과 협약

강진군이 중국 용천시와 일본 하사미정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27일부터 일본 하사미정을 방문중인 강진진 군수 등은 지난 28일 일본 하사미정에서 이치노세 마사타 정장 등과 함께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개최시기, 참여방법 등 기본계획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중국 용천시와 추진계획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합의서에 따라 강진군과 일본 하사미정, 중국 용천시 등은 연차별로 순회하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진청자축제, 하사미도자축제, 용

천 청자보급축제 기간 중 상호 협의를 거쳐 각국의 도자기 전시회 등 각종 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는 오는 2014년 강진군에서 처음 개최되며, 국제학술 심포지엄, 한중일 도예 작가 작품 전시 및 워크숍, 국제청자 공모전, 한·중·일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예정돼 있다. 강진진 군수는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개최로 강진청자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 도모와 우수도자기술 교류로 도자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단신

순창 노인 무료 안과검진 호응

순창군이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26일 보건의료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과검진을 실시했다.

안과 검진은 안과적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환자,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굴절검사와 안압검사 등 1·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인 수술 대상자를 선정한. 저시력자에게는 돋보기도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안과 검진을 통해 250명의 검사자 중 47명은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안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작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정읍 황토현전적지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46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린다.

올해 기념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무명농민 군위령제, 1박2일 황토현 숙영캠프, 청소년 장개발발레스티벌, 동학농민혁명군 진군행렬 등 청장년을 아우르

는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회 동학농민혁명대상에는 동학농민혁명사의 연구에 앞장서 최초의 통사인 ‘갑오동학혁명사’를 발간한 등 동학농민혁명사와 후학의 학술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故) 최현식 선생이 선정돼 의의를 더하고 있다. /정읍=박기범기자 parkks@

전주, 도심쉼터 조성 나무 1만그루 식재

전주시는 29일 “올해 도심쉼터 조성사업에 2억1500만원을 투입해 한옥마을과 백제로, 효자로, 금평공원 등 6곳에 모두 1만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한옥마을에는 전통문화관과 한옥생활체험관 등 민간위탁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자투리 땅에 석류·모과·대추나무 등 유실수 8종과 화북류

9종 등 600여 그루를 심는다. 전통문화원수원은 한국적인 정원을 만들어 고유수종인 매화, 석류, 진달래, 체송화 등을 식재하고, 교통아파트에 식재된 가이즈카향나무는 일본이 원산지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식하고 그 자리에는 전통수종인 소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전주=박기범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내초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군산시는 내초산단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월 1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08년 5월 2일부터 산북동 일부와 내초동 전체(1775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돼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토

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내초산단의 해제로 이제는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 5개리(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대장도리, 관리도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군산=박기범기자·전북취재본부장